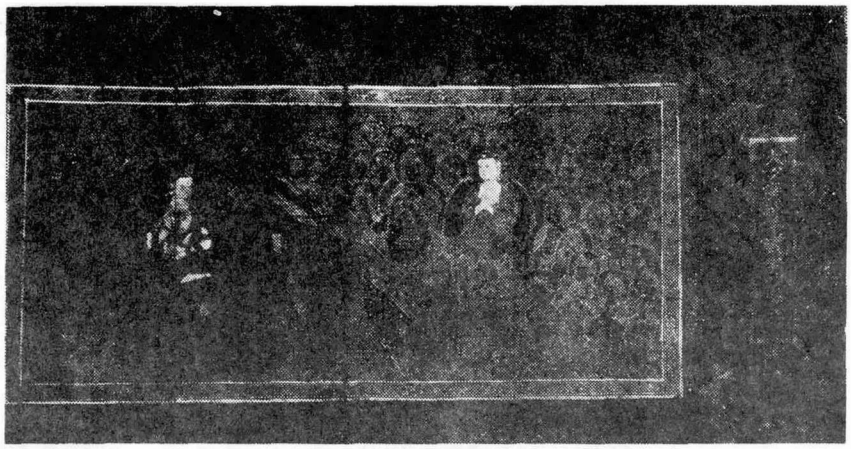
高麗紺紙金字寫經의 新例

黃 壽 永



日本에서 寺社를 비롯하여 公私 所藏의 高麗寫經은 相當數가 있어 그 中에서도 筆者가 調査한 全七册의 折帖 銀泥 또는 墨書의 妙法蓮華經은 二件이나 있어 注目되었다。 이 곳에 紹介하려는 一例는 折帖單卷으로서 經名은「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인 바 體裁는 特異한 바 없으나 卷頭 四面에 金泥變相圖가 있고 그 背面에 小金字로「行願品 變相 文卿畫」라 있어 高麗畵僧의 一人을 알 수 있었음은 더욱 貴重하다。 이 變相은 細線畵로서 三鈷文 矩形輪廓內에는 右側에 方壇위의 毘盧舍那佛坐像을 左側에 蓮座上의 菩薩座像을 相對케하였고 兩尊 周圍에는 菩薩 羅漢 天王 等을 配置하였다。 運筆이 細麗하고 佛菩薩의 莊嚴에 이르기까지 刻明하게 描寫되고 있어 비록 小幅이나 當代 寫經 變相畵의 技法을 보이고 있다。

經文은 天地線과 行間을 金泥 太細線으로 마련한 各 面에 六行 各 行 十七字 (L、26·4×W9·6㎝)로서 當代의 寫經體로 能熟한 筆法을 보이고 있다。

卷末에는 跋記가 있어 金字로서 七行인 바 그 全文은 本誌 一卷三號二三頁(通卷八)에 실은 바와 같다。 그런데 第一行은 磨損되어 至(正?) 一字만이 判讀되었다。 發願者로서는 三重大匡 寧(?) 仁君 李也久不花라고 있어 蒙古式名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行願品과 더불어 金剛經 長壽經 彌陀經 父母思重經 普門品 各 一部를 同時 寫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經名에서 미루어 當代 信仰의 一端을 짐작케 함이 있다。 卷首에 月明莊이라는 朱印이 있어 所藏을 傳하고 있으나 詳細는 알 수 없다。 保存은 比較的 良好한데 일찌기 日本에 將來되어 傳世된 것으로 推定되며 浸濕으로 因한 補修가 보인다。 箱子에는 墨書로「高麗金字扉 繪經 卷末二願文アリ」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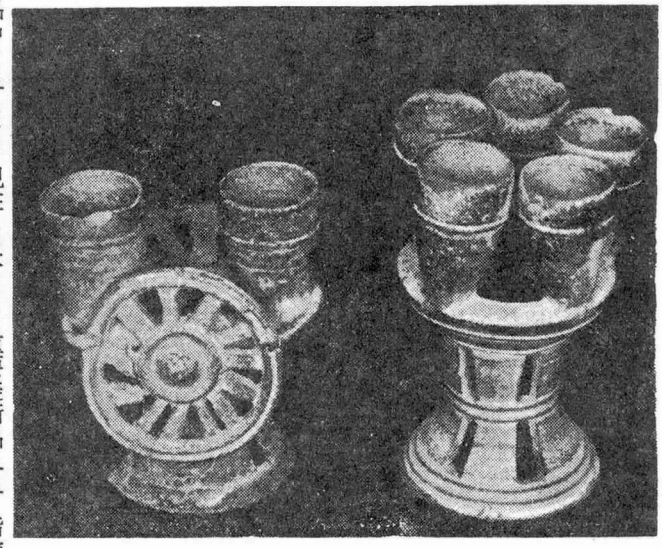
異形 土器 二例

秦 弘 燮

最近 서울市內에서 異形 土器 二點을 過眼하였다。 모두 灰黑色으로 今年 六月頃 玄風地方에서 出土된 것이라고 한다。

一、車形土器

上下 二段의 高台위에 二碗을 얹고 그 옆에 左右로 車輪形을 附着시켰다。 高台 上下段은 二條의 線으로 區分하고 各各 長方形孔을 어긋나게 五個씩 팠다。 그 위에 內部가 通한 二碗을 얹었는데 마치 긴 圓筒을 U字形으로 꾸부려 놓은 것 같다。 碗身部에는 陰刻線이 各各 一條있고



그 사이에 波狀文이 陰刻되었다。二碗 兩側에 車輪形이 있는데 車軸은 圓形 突起로 表現하고 車輻數는 한쪽이 十二이고 다른쪽이 十三이다。碗의 兩側 下部에서 兩 車輪에 걸쳐 圓帶를 돌려서 車輪을 固定시켰고 또 車輪 下部에도 흙으로 高台에 依支하여 이를 固定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異形土器는 小倉氏의 所藏品中에도 있어 現在 日本에서 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되었거니와 그 보다는 若干 솜씨가 떨어지기는 하나 매우 稀貴한 例라 하겠다。

全高 一五·八㎝ 臺高 七·五㎝ 臺下徑 九·六㎝ 碗口徑 四·六—四·七㎝ 車輪徑 九·七—九·八㎝

二、五碗付高杯形土器

中間이 잘숙한 二段의 高台위에 五碗을 密集하게 附着시켰다。台에는 下端에 三條、中間과 上端에 各各 二條의 陽刻線을 두고 上下段에 各各 長方形 五孔을 뚫었다。그 위에 比較的 긴 碗이 얹혔는데 上寬下促이고 上部에 一條의 陽刻線이 있을 뿐 다른 文樣은 없다。

이러한 土器는 他例도 없는 바 아니나 高台와 碗部에서 形態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全高 一八·五㎝ 臺高 一一㎝ 臺下徑 一〇·九㎝ 同上徑 一一㎝ 碗口徑 四·一—四·三㎝

百濟의 寶冠飾金具

孟 仁 在

이 金具는 一九一五年「朝鮮古蹟圖譜」에 紹介된 것을 비롯하여 其間 諸家의 著書에도 적지아니 실렸고 널리 알려져 있어 여기서 또 敷衍하기는 매우 거북하기도 하나 若干 새로 생각나는 점이 있기에 敢히 몇마디 蛇足을 달어보기로 한다。이 金具의 透彫文樣에 대한 說明은 어디서나 山岳文樣과 忍多文과 結合된 流雲文 또는 雲氣文으로 一致하고 있는 모양이고 이와 同系의 것으로 法隆寺 玉虫厨子의 須彌座金具의 文樣을 들고 있다。그 一例를 들면「陵山里中上塚古墳에서 發見된 寶冠狀飾金具는 忍多文의 樣式을 加味한 一種의 流雲文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意匠에 있어서 玉虫厨子의 須彌座金具의 透文樣과 軌를같이 하고 있음은 이에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바이다」(齊藤 忠著 朝鮮古代文化の研究)라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山岳文이야기가 없으나 U形의 兩端을 蓮結한 山岳文은 漢式圖文에도 보이는 바 그 以外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U形內에 들어있는 忍多 또는 流雲文에 대해서는 若干의 疑心이 간다。이 文樣은 忍多이나 流雲이 아니라 두마리

